

# 북한문학 속의 김소월 1\*

이상숙\*\*

## 〈차 례〉

1. 서론
2. 북한문학의 흐름과 김소월 평가의 쟁점
3. 비판적 사실주의와 김소월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문학에 나타난 김소월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요성, 서정성, 민족성을 보여준 김소월은 한국현대시의 대표 시인이다. 그러나 남북의 문학사는 김소월의 민요적 울격, 민족적 정서, 향토적 소재를 각기 다른 의미와 관점에서 평가한다. 남한 연구자들이 서정성, 전통적 정한(情恨)의 정서, 낭만과 애수, 민요, 전통 울격의 시인으로 소월을 평가한다면 북한의 문학에서는 인도주의, 인민성, 애국주의, 민족적 형식, 민족적 요소의 기준으로 소월을 평가한다. 카프에 가담한 바 없고 이념적 경향성을 드러낸 바 없으며 남북 분단 전에 작고하여 체제 선택과도 관계없는 김소월이지만 분단된 남북의 문학사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적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문학은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규정한다. '비판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되기 전 단계의 사상적 문학적 한계를 가진 작가와 작품에 부여된 명칭으로, 김소월이 일제에 빼앗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민요조의 울격으로 향토성, 애국성, 인민성을 보였지만 애상성이 과도하고 계급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설가 니도향과 함께 대표적인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였던 김소월은 1960년대 중반 다른 카프계열 작가들과 함께 북한문학계에서 사라졌다. 이후 20여년 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복권되며 북한문학계에 김소월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에는 '비판적 사실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의 면모가 더 강조되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문학사에 드러난 김소월에

\* 이 논문은 2022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207030001).

\*\*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 칼리지 교수

대한 평가를 찾아내고 그 변화를 정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주제어] 김소월, 김소월시, 현대조선문학선집, 북한문학, 북한시, 비판적 사실주의, 사실주의, 애국주의, 엄호석, 리동수, 「초혼」, 「상쾌한 아침」

## 1. 서론

이 논문은 김소월의 시에 대한 북한문학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현대시사의 대표적 시인 김소월은 1902년에 태어났다. 1925년 등단한 청년 시인 김소월은 1920~30년대 카프(KAPF)에 가담하지 않았다. 1934년에 작고하기까지 토속적 소재와 민요적 율격을 지닌 자신만의 시작(詩作)을 했다. 때문에 김소월은 해방공간, 한국전쟁, 남북 분단기의 이념과 체제와는 관계없지만 남과 북의 분단문학시는 각자의 이념과 정치적 방식으로 한국현대시의 대표 시인 김소월의 문학적 위상을 만들었다. 김소월 시의 민요적 특징, 율격성, 서정성, 전통성을 남북의 문학시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다. 남한 연구자들이 서정성, 전통적 정한(情恨)의 정서, 낭만과 애수, 민요, 전통 율격이라 부르는 것을 북한의 평론, 문학사, 선집에서는 인도주의, 인민성, 애국주의, 민족적 형식, 민족적 특성으로 개념화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개념과 관점의 차이는 70 여 년의 단절이 만들어낸 이질성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체제에 기반하여 분단된 남과 북은 체제경쟁과 극심한 군사적 대립 아래 서로를 비방하는 적대적 관계였다. 이러한 적대성은 정치, 군사 분야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나타났다. 국제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세습체제가 낳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은 북한의 문학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다. 유일주체 체제 유지와 선전 선동을 위해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 바뀌고 다시 뒤집어졌다. 오랜 분단과 적대적 대치가 만든 단절과 대립, 이념에 기반한 거대한 문학관의 간극은 같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게 한다. 이는 분단문학사의 한 현상이며 김소월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남한문학사에서 김소월은 1950년대의 모더니즘/전통, 1960년대의 참여/순수라는 대립구도 안에서 전통지향의 순수서정 시인으로 평가받았고 북한에서는 대체로 일제에 빼앗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민요조의 율격으로 향토성, 애국성, 인민성을 드러냈지만 애상성이 과도하고 계급성은 부족한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다. 전통지향의 순수서정 시인 김소월 시에서 애국성, 인민성을 찾아내는 북한문학의 평가에 남한의 독자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민족, 인민, 애국, 향토와 같은 개념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쓰이기 때문에 생겼고 더 근본적으로는 문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겼다. 이는 북한문학 연구와 남북한문학의 비교 연구 과정에서 늘 맞닥뜨리는 거대한 문제이다. 북한문학 속의 김소월을 살펴보는 이 논문 또한 북한문학계가 쓰는 ‘민족’, ‘인민’, ‘애국’, ‘향토’, ‘비판적 사실주의’, ‘사실주의’와 같은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50~60년대 『조선문학』, 『문학신문』에 실린 평론들과 엄호석의 저서, 선집 『현대조선문학선집 - 시(2)』<sup>1)</sup>과 함께 『현대조선문학선집 14권』<sup>2)</sup> 같이 1990년대 대규모 문학정전 편찬 사업으로 발간된 시선집 그리고 시대별로 편찬되고 있는 북한문학사를 대상으로 한다.

## 2. 북한문학의 흐름과 김소월 평가의 쟁점

### 1) 남한문학사의 김소월 연구

김소월은 한국인이란 모를 리 없는 대표적인 현대 시인이며 그의 시 『진달래꽃』과 시집 『진달래꽃』<sup>3)</sup>은 한국시의 정전(正典)이다. 김소월은 1925년에 『진달래꽃』을 펴냈고 이 후에 나온 시선집이나 전집은 모두 김소월이 사

1) 『현대조선문학선집 - 시(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 류희정 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 14권』, 문예출판사, 1992.

3) 김소월, 『진달래꽃』, 매문사, 1925.

후에 펴낸 것들이다.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스승이었던 김억이 『진달래꽃』에 수록된 시 53 편과 유고(遺稿) 25편을 묶어 1939년의 편찬한 『소월시초』<sup>4)</sup>, 분단 후 북한에서 1955년 엄호석<sup>5)</sup>이 발간한 『김소월 시선집』<sup>5)</sup>이 있으며 현재까지 남한에서는 수없이 많은 김소월 시선집과 다수의 김소월 전집<sup>6)</sup>, 평전<sup>7)</sup> 등이 간행되었다.

남한학계에서는 주제, 소재, 율격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수많은 김소월 연구가 이루어졌다. 1934년에 착고했으므로 김소월은 월북 작가도 아니고, 카페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니 이념적으로 해석되는 시인도 아니다. 또 1920~30년대 문단의 유파(流派)에도 속하지 않은 김소월은 한국현대시 초기에 민요조의 율격에 서정성 짙은 개성적인 시를 쓴 시인으로 평가된다. 스승 김억은 ‘순수한 조선말로 가져다 생명 있는 그대로 자기 시상 표현에 사용한 생명을 부여한’<sup>8)</sup> 민요시인이라 했으며 김동리, 서정주는 “자연에 대한 향수, 체념과 한의 시인”<sup>9)</sup>으로 평가했다. 남한 문단에서는 모더니즘과 전통, 참여시와 순수시의 대립 구도 안에서 김소월의 전통지향 순수 서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민요시인, 전통지향 민족시인, 반근대 전통시인, 전통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시인으로서 소월의 문학사적 위상은 확고하다. 대표시 『진달래꽃』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 김소월 연구는 토속어의 특징과 음악성을 살린 시형식, 사랑과 한(恨)에 대한 반어와 역설에 집중되었다. 최근에는 김소월에 대한 연구가 민족 시인, 국민 시인 김소월이 만들어진 정전이고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sup>10)</sup>, 민요시인, 전통서정 시인 김소월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에

4) 김억 편, 『소월시초』, 박문출판사, 1939.

5) 엄호석, 『김소월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6) 오세영, 『꿈으로 오는 한 사람』, 문학세계사, 1981; 윤주은 편, 『김소월 시 전집』, 학문사, 1994; 오하근 편, 『원본 김소월 전집』, 집문당, 1995; 김용직 편,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김중욱 편, 『정본 소월전집』, 명상, 2005; 김용직 편, 『김소월 시집-원본』, 깊은샘, 2007; 권영민 편, 『김소월 시선집』, 문학사상사, 2007.

7) 김학동, 『김소월평전』, 새문사, 2013; 남기혁, 『김소월 : 근대에 맞선 경계인』, 북페터라, 2014.

8) 김억, 『요절한 박해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 조선중앙일보, 1935.1.22.~26.

9) 김동리, 『문학과 인간』, 청춘사, 1952; 서정주, 『소월 시에 있어서의 정한의 처리』, 『현대문학』, 1959. 6호.

10) 이명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연구』,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

집중한 연구<sup>11)</sup> 등으로 주제나 관점이 다각화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김소월을 연구한 남한의 연구로는 송희복의 『북한의 김소월관 연구』<sup>12)</sup>와 권영민의 『평양에 핀 진달래꽃』<sup>13)</sup>이 있다. 권영민의 『평양에 핀 진달래꽃』은 북한에서의 김소월을 평가한 글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2000년 이후의 북한 문학, 잡지, 교과서 등의 자료까지 찾아 논의에 포함하였다.

강영미는 남북한 시선집에 등재된 김소월시를 비교하여 남북한 시문학의 정전화 과정을 살폈다. 남한과 북한에서 발간된 시선집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한시선집에서는 현실비판적인 시를, 북한시선집에서는 관능적 감각이 드러난 시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했다.<sup>14)</sup> 강영미는 북한에서의 김소월 연구를, 고유어와 운율로 개성과 세태를 드러내며 민족정서를 체현했다는 평가, 비판적 사실주의 관점에서 향토애와 인민의 생활상과 이품을 표현했다는 평가, 항일혁명문학의 관점에서 시대적 자주성을 보이지 못한 한계를 비판하는 평가로 정리했다. 남북한 시선집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지만 김소월에 대한 남북한문학사적 평가의 시대별 변화와 남북의 대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북한에서의 김소월에 대해 주목한 또 하나의 연구로 이지순의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을 들 수 있다.<sup>15)</sup>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에서 편찬된 문예사전에 나타난 김소월에 대한 서술을 비교하여 문학 개념으로서의 김소월의 의미체계를 분석하고 김소월이 남북 문학장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유되었다고 결론을 맺는다. 시 「초혼」에서 애국심을, 「길」에서 반항을 읽으며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보는 북한의 관점과 김소월의 개인 감정세계에 집중하는 남한의 관점이 충돌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충돌점이 서

11) 권유성, 「김소월 ‘시혼’의 반시론적 성격 연구」, 『국어국문학』 159호, 국어국문학회, 2011; 이광호, 「김소월 시의 시선 주체와 미적 근대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3.

12) 송희복, 『북한의 김소월관 연구』, 『김소월 연구』, 태학사, 1994.

13) 권영민, 『평양에 핀 진달래꽃』, 통일문학, 2002.

14) 강영미, 「정전과 기억: 남북한 시선집의 김소월 시 등재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90쪽.

15) 이지순,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남북한 문예사전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70, 2018.

로 교집합과 점점을 이루면서 ‘김소월’이라는 개념을 남북한이 형성한다고 했다. 이지순이 언급한 ‘비판적 사실주의’, 애상성, 서정성 같은 개인 감정은 이 논문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다.

최창현은 남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김소월의 「초혼」을 예로 들었는데, 「초혼」의 ‘님’을 남한에서는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오로지 조국애를 고양시키는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했다. 이러한 표면적인 조국애의 강조는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교육이며 이는 주체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문학교육은 정치사상의 심미적 내면화와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양성을 지향한다고 했다.<sup>16)</sup>

## 2) 북한문학사와 김소월의 부침(浮沈)

1966년 김정일 교시 이후 북한문학계에서 김소월이 사라질 때까지 북한문단의 김소월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적 작가’에 집중되었다. 김소월을 언급한 평론, 문학사 등의 대부분의 글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는 김소월의 작가적 정체성처럼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시인들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하면서 소월을 비교 대상으로 가져온 글들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소월의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적 성격보다는 김소월 시에 대한 북한문학계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평가와 견해를 볼 수 있다.

김소월이 북한문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50년 이전의 글로는 류병관<sup>17)</sup>과 김우철<sup>18)</sup>의 평론이 있을 뿐이다. 북한문단 초기에 소월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이유는 소월이 카프에 가담하지 않았고 분단 전에 작고했기 때문이다. 카프 문학과 사회주의에 기반한 문학 수립에 몰두한 초기 북한 문단에서 카프도 아니었고 해방기 문단에서 이념적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김소월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16) 최창현, 「남한 『문학』과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김소월의 「초혼」과 최서해의 「탈출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2019, 623~629쪽.

17) 류병관, 「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 『문학예술』, 문학예술출판사, 1947.

18) 김우철, 「시인 김소월」, 『문학예술』, 문학예술출판사, 1947.

당시 북한문학계의 중심에 있던 평론가 엄호석은 1955년에는 『김소월 시선집』<sup>19)</sup>, 1958년에는 『김소월론』<sup>20)</sup>을 펴냈다. 엄호석은 1957년 1월 1일자 『문학신문』에 실린 〈작가들의 새해 창작계획〉에서 “김소월의 시창작이 현대 조선문학사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창작의 예술적 심오성은 복잡한 미학상 문제”가 있지만 “2차 조선작가대회의 정신에 의하여 곤란한 문제의 해결 앞에 대담하게 맞서”겠다고 한다. 이른바 ‘2차 조선작가대회의 정신’에 의해 1958년에 『김소월론』을 간행한 것인데 이는 2차 조선작가대회의 정신으로 김소월의 예술적 가치와 심오한 미학을 파헤쳐 순수한 예술적 견해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복원 또한 김소월시를 개념이나 관념을 앞세우지 않은 서정성 짙은 시로 평가했다. 그는 “김소월의 시 등은 개념적이 아니고 노래하고저 한 내용이 서정화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 좋다. 그러나 해방 후의 적지 않은 작품들은 사상적 내용이 로출되고 덜 서정화되어 있어 읽는 것부터 로력으로 되며 길고 산만하여 외이기 곤란하다”는 독자의 의견을 전하며 박팔양, 박세영, 안통만, 홍순철의 시가 해방 전보다 재미없어졌다고 평가한다. 또 그 원인이 개념화된 주제와 전형적 소재로 빈곤해진 서정성을 보이는 도식주의에 있다고 비판한다.<sup>21)</sup> 엄호석과 김복원은 관념과 사상 표출에 빠진 당시의 시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서정성이 짙고 예술성이 높았던 과거의 시로 소월의 시를 거론한 것이다. 카프와 사회주의 건설 중심의 북한문학 초기에 잊혀졌던 김소월은 이른바 1950년대 중반 ‘도식주의 비판’을 배경으로 북한문학사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의 문학은 사회주의 건설의 이념을 앞세우고 문학적 형상성과 서정성을 소홀히 하는 ‘도식주의’에 빠져있었고 일부 문인들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복원도 그 중 한 명이었고 위의 글은 도식주의 비판으로 가득했던 『제 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에 실렸다. 이 책

19) 엄호석, 『김소월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20) 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1) 김복원, 『시 문학의 보다 높은 양상을 위하여』,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12~113쪽.

은 1950년대 중반 북한문학의 한 장면을 대변한다. 1956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문인들은 무척 고무되었다. 20차 소련공산당대회는 3년 전에 사망한 스탈린의 독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련 사회, 문화계에 예술성과 문학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련 문화 예술에게 불어온 ‘해빙’, ‘훈풍’을 목격한 북한의 문인들은 사회주의 리더적인 소련 문화계의 변화가 북한의 예술과 미학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열린 ‘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북한문학의 도식주의를 비판하고 문학성과 미학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구호와 도식적 구성이 넘쳐나던 북한문학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인데 문학의 독자성과 서정성 등을 주장한 그들의 목소리가 『제 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것이 김복원의 도식주의 비판 발언의 배경이다.

그러나 북한 작가들의 용기있는 주장의 결과는 소련과 사뭇 달랐다. 독재를 비판하고 문화계의 해빙을 마련한 소련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오히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주의와는 다른 김일성의 독자적 사회주의, 나중에는 주체사상으로 변화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대두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한 김복원, 백석, 김순석 등의 문인들은 1958~1959년 사이에 현 지 파견 형식으로 정치적, 문학적 숙청을 당했다. 이른바 1958~1959년의 ‘종파투쟁’이다. 1956년에서 1958년은 북한문학에서는 ‘희망’의 시기이자 유일독재와 주체문학의 긴 어둠의 전조와 같은 시간이었다. 이 짧은 ‘희망’의 시기에 엄호석, 김복원 같은 문인들이 당시의 북한 시가 갖추어야 할 문학성과 서정성의 모범으로 1920~30년대 시인 김소월을 예로 든 것이다.

박종식은 민병균 시인에 대한 평론에서 김소월을 “20년대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생활감정, 그들의 가슴에 맺힌 조선적인 슬픈 현실을 자기 시 속에서 독특한 운률과 음향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시인”으로 평가하며 민병균의 시가 소월의 시와 닮지는 않았으나 “소월이 호흡하던 시대적 분위기 특히는 가난한 조선 농민의 생활감정, 압박받고 천대받는 조선 농민의 억울하고



슬픈 생활감정은 민병균의 초기 시 속에 완전히 흐르고”있고 했다.<sup>22)</sup> 민병균의 시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이지만 이 글에서 김소월을 평가하는 북한문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김소월을 대표적인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의 면모보다는 가난한 조선 농민의 슬픈 생활 감정, 독특한 운률과 정조를 잘 표현한 시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남한 연구자와 독자들이 느끼는 ‘민족 정서’, ‘애상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종식은 또 다른 민병균 관련 평론에서 김소월과 이상화의 서정이 민족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보다 본질적 문제는 시인의 시적 체험과 그의 시적 사고가 인민적이며 따라서 민족적이라는 것에 있다. 서정 그 자체가 민족적이라는 것 즉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서정에서 바로 우리의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 길이 있으며 다양하다. 여기서 어떤 형식의 민족적 틀을 찾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상화의 서정시가 가지는 특성에서 또는 소월의 서정시가 가지는 특성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에서 보듯 김소월의 서정이 민족적인 이유는 시적 체험과 사고가 우리 민족만의 감정과 입장,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문학에서 ‘인민적’, ‘민족적’으로 칭하는 서정성을 김소월이 가진 체험과 사고에서 나온 좀 더 근원적인 ‘우리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 논문에서 다루기 보다는 1950~1960년대 북한문학비평의 중요한 논쟁인 ‘민족적 특성론’의 맥락 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형식의 민족적 틀을 찾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우리의 것’, ‘서정’이 ‘민족적 형식’ 즉 ‘민족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형식적 특징’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민족적 특성론의 핵심인데 박종식의 서술은 그에 직대입할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을 가진 것 같다. 이 역시 민족적 특성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성만은 김소월의 시가 주인공의 정서와 자연이나 물체의 묘사와 직관적

22) 박종식, 「시인과 개성-시인 민병균을 논함」, 『조선문학』, 1960.8.

23) 박종식, 「서정시와 현대성」, 『조선문학』, 1961.7.; 이상숙 외, 『북한의 시학연구 3-비평』, 소명출판, 2013, 318~320쪽에서 재인용.

으로 연결되는 우수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진실로 우수한 시들은 주인공의 정서와 그 주인공의 외적 상태도 묘사하며 그를 둘러싼 자연과 물체의 화폭도 창조한다. 김소월의 『바다』, 『가는 길』, 『작주 구성』 같은 시에서 이런 표현적이면서도 회화적인 직관적 화폭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서정시의 진미는 시에 노래된 현실 자체의 미나 평면적 화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면적이고 회화적 화폭이 불러일으키는 정서, 사색에 있다.”<sup>24)</sup>면서 정서, 사색(사고)을 팝진하게 드러내주는 자연, 형상(물체의 화폭)을 잘 활용한 시인 김소월을 높이 평가한다.

위와 같이 김소월은 ‘관념적이지 않은 시, 우리민족이 공감할 생활감정을 기반으로 한 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회화적 묘사, 전통적인 율조와 정조가 드러나는 서정성’의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1950~60년대 북한문학사, 문학선집, 평론 등에 나타난 김소월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일제 강점기의 중요한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이다. 이것은 1955년 엄호석이 『김소월 시선집』을 낸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김소월 서거 30주년 기념식에서 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정서춘은 “현재 조선시가의 력사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를 대표한 시인인 김소월은 리상화를 비롯한 프롤레타리아 시인들과 함께 1920년대에 활동하면서 일제에 강점된 조국의 운명을 비통하게 노래한 우수한 애국적 시가를 수많은 창작하였다”고 했다. 이 말처럼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시인으로 칭하는 것이 북한문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sup>25)</sup>

엄호석의 『김소월 시선집』, 엄호석의 평론집 『김소월론』과 윤세평의 『해방전 조선문학』<sup>26)</sup>, 안함광의 『조선문학사』<sup>27)</sup>, 『조선문학통사』<sup>28)</sup>와 같은 문학사, 104편의 김소월시가 수록된 『현대조선문학선집 - 시(2)』<sup>29)</sup>, 류병관, 김

24) 강성만, 『서정시와 일반화의 특성』, 『조선문학』, 1964.8.; 이상숙 외, 『북한의 시학연구 3-비평』, 소명출판, 2013, 369~379쪽에서 재인용.

25) 기자, 『김소월 서거 30주년을 기념-평양시내 문학예술인들』, 『로동신문』 1965.12.25.

26) 윤세평, 『해방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7) 안함광, 『조선문학사』, 1956.

28) 『조선문학통사』, 1959.

29) 『현대조선문학선집』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 편찬되었다.

우철, 강운립, 현종호, 김창석, 이정구, 박팔양의 평론과 수필<sup>30)</sup>, 김소월 서거를 기념하는 문학지와 수많은 신문 기사, 시, 해설, 특집 등에서 알 수 있듯 북한문학에서 김소월은 중요한 시인으로 언급된다. 1965년 12월 김소월 서거 30주년을 기념하여 『문학신문』에는 박팔양의 수필과 함께 「금잔디」, 「진달래꽃」, 「초혼」, 「우리에게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사주구성」 등 김소월의 시 5편이 실렸으며 1965년 12월 28일 발행된 다음호에는 「향토시인을 추모-김소월 서거 30주년 기념의 밤 진행」이란 제하의 기사와 함께 참가자들 사진이 함께 실렸다. 김소월 서거 30주년 기념 기사는 시 「초혼」과 함께 『로동신문』에도 실렸다.<sup>31)</sup> 이듬해인 1966년 『문학신문』은 집중적으로 김소월 관련 연재를 하는데 본격적인 연재 전에 김소월에 대한 조벽암의 시 「압록강 기슭에서-곽산에서 소월묘를 찾아가는 길에」<sup>32)</sup>와 김영희 기자의 기사 「소월의 고향 곽산땅에서」<sup>33)</sup>가 실리기도 했다. 연재는 기행문 형식의 「김소월의 고향을 찾아서」이며 1966년 5월 10일호에 (1)회가 시작되어 7월 1일까지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김영희 기자의 기행문에 ‘소월의 옛집’, ‘소월의 고향 마을 언덕에 있는 락타바위’와 같은 사진과 그림 ‘시인의 고향 앞바다’, 작품 ‘함박눈’ 등이 함께 실려있고 6월 28일자에는 연재 기행에 대한 독자평 형식의 ‘독자의 목소리’까지 실렸다. 일주일에 두 번 총 4면 발행되는 『문학신문』에 12회에 걸쳐 기행문과 사진을 함께 편집하는 것은 흔한 일 아니다. 이 많은 글들에서 김소월은 일관되게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소개되었다. ‘비판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전 단계인 계몽주의, 사실주의보다는 진전된 것이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는 미치지 못한 단계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30) 류병관, 「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 문학예술출판사, 1947; 김우철, 「김소월」, 문학예술출판사, 1947; 강운립, 「김소월 시선집」에 대하여, 『조선문학』, 1956; 현종호, 「김소월과 그의 시문학」, 『현대작가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김창석, 「김소월과 그의 시적 쓰질-서거 25주년에 제하여」,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이정구, 「소월 시와 조국에 대한 그리움」,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2.9.7; 박팔양, 「조국의 향토를 사랑한 시인」,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5.12.24.

31) 기사, 「김소월 서거 30주년을 기념」,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65.12.25.

32) 조벽암, 「압록강 기슭에서-곽산에서 소월묘를 찾아가는 길에」,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6.3.18.

33) 김영희(본지기자), 「소월의 고향 곽산땅에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6.4.1.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거 20주년 25주년을 챙기고 3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던 중요한 시인 김소월은 1966년 7월 『문학신문』 이후 북한문단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주체시대가 공고해지고 문예정책이 카프보다는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김소월과 함께 이전 시대의 많은 문인들이 문단에서 사라졌다. 이른바 북한판 문화혁명으로 불리는 5.25 교시의 시행에 의한 것인데, 5.25 교시의 핵심은 자본주의, 수정주의, 봉건유교사상 청산 요구이다.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문학을 발굴하지 않고 카프와 신경향파 문학을 혁명전통으로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면서 김소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소월의 시가 일제에 빼긴 나라, 민족의 존엄을 짓밟힌 슬픔과 설움이 있지만 그의 감상주의, 신앙주의가 인민 혁명 교양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sup>34)</sup> 소월시에 나타난 일제에 억압받던 농민들의 슬픔과 생활감정을 감상주의로 보고 전설, 민담 등의 토속적 요소를 신앙주의로 본 것이다. 이 교시에 의해 조명희, 김소월, 정지용 등의 작가들이 북한문학에서 사라졌다. 이후 북한사회는 김일성 중심의 이른바 유일주체 사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1950년대 발간된 문학사 『조선문학사』, 『조선문학통사』에는 김소월이 서술되어 있지만, 1977~1981년간에 발간된 『조선문학사』에는 김소월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 3) 복권(復權)된 김소월

김일성 중심의 유일주체사상 아래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하던 북한문학계는 1980년대 중반 변화를 보인다. 구체적인 계기와 기점이 될만한 교시를 찾을 수는 없으나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sup>35)</sup> 등에서 이전 문학사 서술과 다른 부분이 보인다. 김소월 관련 서술을 보면 1980년에 간행된 『조선문학

34)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1967.7.3. 『김정일 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74~286쪽.

35)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사(19세기 말~1925)』에는 김소월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986년 간행된 『조선문학개관』에는 현진건, 나도향 등과 함께 비판적 사실주의의 작가로 소개되어 있고 2000년에 간행된 『조선문학사』 7권에는 김소월을 김억과 함께 “민요풍의 시 창작으로 현대 자유시 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시인”으로 소개한다. 김소월이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념과 인민적 립장에서 출발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비에와 사모, 고독의 정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절함과 울분의 반영”이며, “향토와 조국과 같은 보다 신성한 대상과 련결시키면서 숭고한 경지”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한다.<sup>36)</sup> 여전히 사상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비애와 사모의 정서를 향토와 조국에 대입하는 숭고한 경지를 보였다고 매우 높게 평가한다. 김소월의 복권(復權)이라 할 수 있다.

리동수의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연구』<sup>37)</sup>에서 일부 카프 작가들과 함께 김소월이 다시 언급되었는데, 리동수는 이광수, 염상섭, 채만식, 이효석, 김소월, 한용운을 ‘비판적 사실주의’작가로 평가한다. ‘비판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해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부르주아 리얼리즘의 다음 단계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sup>38)</sup> 북한문학에서는 사회주의 지향의 리얼리즘 작품과 다른 범주의 민족문학유산에 속한 작품에 적용되는 다소 광범한 개념이다. 리동수는 ‘향토애를 구가한 민요풍의 시인’ 김소월의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리에게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은 농민에 대한 이상에 그쳤으며, 『삭주 구성』은 고향에 대한 사상 감정은 보였으나 시대적 계급적 관점이 부족하고, 『초혼』은 향거 정신과 결부되지 못하고 애상적 감정세계에 머물렀다. 이에 김소월은 조국과 자연의 형상과 인도주의 정신이 있지만 세계관의 미숙성, 계급적 관점과 향거 정신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소월을 비판적 사

36) 류만·리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108~117쪽; 이승윤, 『북한문학사 서술의 특징과 변모 양상』, 『북한의 시학연구 6-북한시학의 형상과 사회주의 문학』, 소명, 2013, 43~44쪽에서 재인용.

37) 리동수,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38) 김성수, 『남북한의 리얼리즘(사실주의)문학지평 개념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72, 한국문학연구학회, 446~447쪽.

실주의 작가로 평가했던 1960년대 글들과 다른 논점은 없지만 리동수는 김소월의 많은 작품을 예로 들어 자세한 분석을 보여주었다.

1992년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문학예술 발전에 기여한 작가와 예술인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하면서 김소월과 카프작가들의 복권이 이루어지고 문학사에 언급되는가 하면 문학 정전 사업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복고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실학파나 ‘카프’를 보잘 것 없이 여겼는데 이는 우수한 민족문학예술유산, 민족의 문화유산을 잃는 것이니 이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취지였다. 무산계급을 내세워 사회주의의 이상을 표현한 카프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고 신채호, 한용운, 김억, 정지용과 김소월을 진보적인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명시했다.<sup>39)</sup> 1967년 김정일의 비판으로 자취가 사라졌던 김소월은 “우수한 민족문학예술유산, 민족의 문화유산”을 찾으라는 김정일의 교시로 다시 문학사에 등장하게 된다.

1988년에는 문학예술성공과를 폭넓게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김소월은 『문학예술사전』에 등재되었다. 남북한의 문예사전에 등재된 김소월을 비교한 이지순의 연구를 보면 남한문예사전에서는 김소월이 꾸준히 등재되었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선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하여 간행된 『문학예술사전』(1972)에는 김소월은 물론 카프 작가, 해방 전 작가들이 없었는데, 1988부터 발간된 『문학예술사전』, 『문예상식』(1994), 『문학대사전』(2000), 『문학예술대사전』(2006)에는 김소월이 등재되어 있다.<sup>40)</sup> 이지순은 2000년에 발간된 『문학대사전』의 김소월 항목에 ‘비판적 사실주의’가 사라졌음을 확인했다.<sup>41)</sup>

1993년에 발표된 『김소월과 그의 작품』<sup>42)</sup>에도 ‘비판적 사실주의 대표작가’라는 서술은 없다. 1950~60년대의 많은 글에서 김소월은 나도향과 함께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작가로 거론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복권되어 문학

39)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4~84쪽; 『김정일선집』 12권, 389쪽.

40) 이지순, 앞의 논문, 206~211쪽.

41) 이지순, 앞의 논문, 208쪽.

42) 『천리마』 1993년 6월호에 실린 글 「김소월과 그의 작품」과 2000년 4월 『통일문학』에 실린 글은 같은 글이다.

사와 문학선집에 등장하면서부터 ‘비판적 사실주의’의 수식어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2017년판 고급중학교 『통합국어』에서는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남한의 학제에 따르면 고등학교 국어교육과정의 학습참고자료인데 『초혼』을 “조국을 빼앗긴 통분한 심정을 절절하게 토로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울분을 노래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으로 소개한다.<sup>43)</sup> 또 이 시의 주제를 ‘나라 잃은 민족의 비애’, 사상은 ‘조국도 잃고 님도 잃은 삶은 죽음과 같다는 것이다’로 서술했고 한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제한성’ 항목에서는 ‘조국을 빼앗긴 비통함에 그치고 그 해결방도를 밝히지 못한 것’, ‘즉 조국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투쟁정신과 밀접히 결부시키지 못한 것’으로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가 문학사의 시대별 유평처럼 김소월과 나도향 등에 붙여진 수식어처럼 쓰였다. 이때의 ‘비판적 사실주의’는 북한 문학계의 평가로 보기보다는 문학 정책적 판단이 교육과정에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3. 비판적 사실주의와 김소월

#### 1)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 김소월

북한문학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50~60년대에 가장 활발했다. 논자에 따라 사적 조건, 기반하고 있는 사상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논의를 종합하여 느슨한 정의를 해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당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호석은 비판적 사실주의가 진보적인 문학이며 그 평가 기준은 당성, 인민성, 현실반영의 진실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미학적 원칙에 입각

43)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고급중학교 『통합국어』, 교육도서출판사, 2017, 171~174쪽.

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의해 그 의의가 더 커지는 ‘호상관련’ 속에 있다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라 할 수 있는 카프 작가들과 김소월의 변별점을 설명한다. 또, 남한의 문학사가 백철을 예로 들어 김소월을 다른 사실주의 작가들과 함께 주조(主潮)밖에 있는 시인으로 푸대접했다면서 비판했다. 김소월은 프롤레타리아 작가들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으로써 김 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이라 하는가. 김 소월의 시의 어디에 비판이 있는가. 그렇다. 김 소월은 그가 반영한 일제 시대의 온갖 사회적 모순과 악덕에 대한 직접적 비판자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일제 사회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그 기초로 되어 있지 않다. 비판은 왕왕 그의 시 창작의 후면에 숨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실주의의 기준을 비판에만 귀결시켜서는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바랄 수 없다. 비판 그것은 이 사실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눈에 띄이는 지표라 할지라도 이 사실주의의 범주와 그의 지표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비판적 사실주의는 비판만하는 문학이 아니라 무엇보다 긍정적 이상을 옹호하는 문학이다. 비판은 그것이 가장 강렬하고 광범한 경우에 있어서조차 이 긍정적 이상의 옹호를 위한 비판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 사실주의를 가리켜 긍정적 이상의 옹호로써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미학적 기준은 비판이나 혹은 긍정적 이상의 어느 하나에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성에 있어야 하며 또 실제에 그러하였다. 우리는 다만 인민성의 기준으로써만 복잡하고 다양한 흐름을 이룬 이 사실주의 문학과 그 작가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또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미학적 제 원칙의 과학적 견지에서 심오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해결할 가능성으로 보장될 수 있다. 비판은 이 경우에 이 문학의 중요 지표의 하나이나 가장 본질적인 지표의 또 하나는 그것이 비록 공상적이기는 하나 긍정적 이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있다.<sup>44)</sup>

44) 엄호석, 『김소월론』, 22~23쪽.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시인들의 높은 미학적 이상에는 못 미쳤고 협소한 세계관으로 잃어버린 향토와 조국생활 애모만을 노래한 김소월이 미래를 의식한 투쟁이나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긍정적 리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이라는 것이 엄호석의 생각이다. ‘비판적 사실주의’ 논의에는 엄호석 외에도 박종식, 김하명, 안함광 등 당대의 논자들이 참여했고 ‘긍정적 리상’ 외에 사실주의 개념을 규정하는 엥겔스의 기본원칙 ‘전형적 환경 속에서의 전형적 성격’, 고리끼의 ‘리성주의와 비판주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객관적 전제조건으로서의 ‘봉건적 혹은 부르주아적 착취사회’, 연암과 다산, 프롤레타리아 문학과와의 관계 등 많은 쟁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짧은 평론 등에 부분적으로 드러날 뿐, 비판적 사실주의의 기본 개념과 핵심 조건, 해당 작가와 작품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비판적 사실주의의 개념, 특징, 작가와 작품론을 아우르며 북한문학의 비판적 사실주의를 정리한 리동수의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연구』(1988)을 통해 ‘비판적 사실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리동수는 ‘문예부흥기 사실주의 이후 고전주의, 계몽주의적 사실주의, 진보적 낭만주의로 이어지는 서구문학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문학조류가 비판적 사실주의’라고 했다. 또, ‘이들 작가들은 부르주아 출신이라도 그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근원적으로 그것을 없앨 방도를 모르는 세계관의 미숙성과 사상적 약점이 있으며 이것이 비판적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구별짓는 것’이라고 했다.<sup>45)</sup>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는 192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병존하다 그 사조적 특성과 제한성으로 현실모순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전망과 투쟁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물러섰다고 했다. 김소월이 대표적이다.

45) 리동수,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살림터, 1992, 11~21쪽. 이 책은 북한에서 출간된 리동수의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연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을 남한에서 출간한 것이다.

소월의 시창작 활동은 향토와 겨레에 대한 사랑과 귀중한 모든 것을 빼앗은 악착한 일제 통치사회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감정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가의 세계관적 약점과 사상의 불철저성으로 하여 그의 창작은 적지 않은 점에서 일련의 부족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창작은 애국적 리념에 일정하게 기초하긴 하였으나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념과 인민적 립장에서 철저히 출발되지 못하였으며 창작의 전 과정에서 민족과 겨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즐기차게 관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의 창작은 비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애절하고 향수적인 체험에 많이 젖어 있었다. 그의 시에서 비애와 울분의 감정에서 한걸음 나아가 불합리한 환경에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강렬한 체험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착취제도의 착취계급의 횡포에 반기를 표시하여 자기의 시세계를 승화시킨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제한성은 그의 사상적 약점과 당대 사회력사적 제한성과 관련된 것이었다.<sup>46)</sup>

소월의 시가 애국적이기는 하지만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념과 인민적 립장’이 부족하고 비애와 울분의 감정에 머물러 ‘착취제도의 착취계급의 횡포’에 저항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강렬함으로 승화되지 못한 것이 ‘사상적 약점과 당대 사회력사적 제한성’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비판적 사실주의’ 논의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것이다. 리동수는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들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역할과 의의를 인정하며 사상적 한계를 감싸는 입장을 보인다. 리동수는 1920년대 대표적인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한용운과 김소월을 들었는데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들이 세계관의 미숙성과 사상적 약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용운과 김소월같은 서정시인은 사실적인 나열이나 직선적인 표현을 삼가는 창작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비판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 옹호하는 것이다.

---

46) 같은 책, 250쪽.

시인 김소월도 192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시 창작에 들어서 향토와 거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짓밟힌 가난한 인민들의 비극적 운명을 동정하는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일제 침략자들에게 땅과 향토와 사랑하는 귀중한 사람들을 잃고 빼앗긴 수난자들의 비극적 체험을 피타게 절규하면서 고향과 향토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치솟는 반일 감정을 시가 전반에 담았다. (중략) 그들의 시문학이 담고 있는 비판정신에 대한 문제이다. 그들의 시는 다같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모순을 로출시켜 반영하지 않고 비유적 형상을 통하여 시인의 체험을 전달하는 창작수법상 특징으로 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립장이 모호하여 따라서 비판정신이 심히 약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시문학이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으로서의 창작방법과 특징을 원만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보고 고찰하는 것은 단순하고 일면적이다. 이것은 창작가들 자신의 세계관적 미숙성과 제한성에도 련관되어 있으나 기본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반영하는 묘사 방법상 특성과 함께 당대의 사회력사적 환경과 창작적 개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정시는 시인의 체험을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형식으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생활을 사실적으로 라렬하지 않으며 또 생활을 정서적으로 펼쳐 보여주기 때문에 직선적인 표현을 삼간다.<sup>47)</sup>

일제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반일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정신이 약하고 세계관이 미숙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서정시의 특성, 표현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생활을 사실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것, “직선적인 표현” 곧 노골적인 표현대신 자연, 풍경, 인간에 의탁하여 “정서적” 즉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정시의 본령이며 때문에 김소월의 “단순하고 일면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동수의 이러한 평가는 김소월에 대한 그만의 우호적인 발언이기보다는 비판적 사실주의로 분류되고

47) 리동수, 앞의 책, 36~37쪽.

평가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점일 수 있다. 비판적 사실주의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전 단계의 문학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세계관의 미숙이나 사상적 한계는 비판의 대상이기보다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한 특징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애국주의’와 ‘긍정적 이상’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초혼』, 『진달래꽃』, 매문사, 1925.

북한문학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초혼』은 ‘조국을 빼앗긴 통분한 심정’, ‘나라잃은 민족의 비애’를 보여주는 시로 해석되었고 그 외의 해석은 없었다. 김우철은 『초혼』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통곡의 경지에까지 승화된 뼈저린 호소를 읽을 수 있다”, “3.1운동이후에 민족해방운동의 영도권을 틀어쥐고 조선 로동 계급의 날로 자라는 힘을 아직 느끼지는 못한 그였으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겠다고 노래한 이 시인의 높은 호소는 그의 아름다운 민족적 절개를 보여 주고 있다”, “현대 조선 말이 갖고 있는 그 색조와 음향을 주옥같이 빛내이고 깊이 울려주면서 인민의 언어를 제고하고 풍부히 함에 있어서도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렸다”<sup>48)</sup>고 평가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통곡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절개’라고 보았다. ‘절개’란 대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이 시에서는 ‘국가’를 향한 것으로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 투입할 여지가 없다.

강운림 또한 이 시를 “일본 침략자들에 의하여 빼앗긴 자기 조국에 대한 시인의 끝없는 사랑이 통곡에 가까운 순화된 호소”, “시인의 높은 호소에서 우리는 서정시인 김소월의 조국에 대한 아름다운 민족적 절개를 력력히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sup>49)</sup> ‘조국에 대한 아름다운 절개’라는 평가는 김우철의 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후 이어지는 『초혼』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그는 “1920년대의 새로운 혁명적인 정세에 시인 자신의 시야를 침투시키지는 못했으나 생활현상을 진실되게 밝혀내는”<sup>50)</sup>이라

48) 김우철, 『시인 김소월 - 그의 서거 20주년에 제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12. 162~166쪽.

49) 강운림, 『김소월 시선집에 대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7.

50) 위의 글, 187쪽.

고도 했는데 여기서 ‘1920년대 혁명적인 정세에 자신의 시야를 침투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김소월이 카프에서 활동하지 않아 당시 농민, 무산자의 계급 투쟁을 시로 써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문학이 김소월을 평가할 때 늘 지적하는 한계이다. 사랑하는 이가 다시 살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가능을 알면서도 절규하는 ‘초혼(招魂)’ 의식처럼 통곡하듯 쓰여진 이 시를 북한에서는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해석 앞에서 남한의 연구자와 독자들은 북한문학의 경직성과 편협한 관점을 아쉬워하며 남북문학의 이질적 관점을 느끼게 된다.

엄호석은 『김소월론』에서 방연승의 의견을<sup>51)</sup> 높게 평가하면서 안함광의 『조선문학사』(1900~ )가 김소월의 위치를 조명희, 최서해, 리상화와 같은 프로레타리아 작가와 동등하게 두었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안함광이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나 부르주아 문학이나만 구분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또 그는 「초혼」의 바리엔트(변형, 선행형태)를 「옛님을 따라가다가 꿈깨여 탄식함이라」에 있다고 하며 애국주의 주제를 강조한다. 시적 정황이 유사하고 “심중에 남아있는 한마디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와 같은 유사한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옛님을 따라가다가 꿈깨여 탄식함이라」이 「초혼」의 선행형태이고 그 과정이 개인의 심정이 애국주의로 이행하는 증거라고 한 것인데 남한 학자 김용직이 직접 비판한 바<sup>52)</sup> 있듯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여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쁨이여!”를 소월이 시인으로서 한평생 자기의 슬픔과 애수, 념원과 이상의 온갖 감정을 다하여 불러 온 모든 시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상이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인민에게 남긴 심오한 애국주의 정신의 유언이며 김소월은 “단순히 사랑을 민요조로 아름답게 노래한 민요시인이 아니”라 “조국을 열렬하게 노래한 참된 시인의 한 사람”<sup>53)</sup>이었다며 엄호석은 「초혼」을 통해 애국주의자 김소월을 부각했다. 애국주의는 김소월의 모든 시의 정서와 서정성을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51) 방연승, 「김소월 시문학의 사상예술적 특징」, 『청년문학』, 1956.1.

52) 김용직, 「서정과 역사적 상황 김소월론」, 『김용직 평론선집』,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53) 엄호석, 앞의 책, 268~273쪽.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비애로 만들고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는 비애의 정서는 곧 비판적인 것이 되므로 이념성을 띠지 않았던 김소월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비판적 사실주의의 범주로 넣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어지는 김창석, 정서춘의 평가 역시 김소월을 애국주의 안에서 낭만성을 드러낸 시인으로 평가한다. 김창석은 애수, 리리즘을 김소월 시의 독창적 개성이라고 하면서도 “김소월의 역사적 제한성은 잃어진 조국에 대하여 슬퍼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산주의적 이상과 결부된 영웅적이며 락천주의적인 투쟁의 비극을 구가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라며 비판적 사실주의를 구체적 감동적으로 발현하지 못한 “역사적으로 제한되고 불철저한 세계관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김소월의 한계를 지적한 그였지만 글 말미에서는 “김소월의 서정시들에서는 그 서정적 체험이 항상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 것의 통일로 나타난다. 룬리-세태적인 것을 통하여 거대한 사회적 일반화에 도달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그의 『초혼』은 아주 특징적이거니와 여기에서 잃어진 님은 사라진 조국을 상징하는 격조 높은 낭만주의적 형상으로 승화되었다”고 높게 평가했다.<sup>54)</sup> 소월 서거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작가동맹 시분과 위원장 정서춘은 김소월의 시 『초혼』에서 울리는 심오한 애국주의 사상은 그의 모든 시들에서 울려 나오는 애국주의 사상이며 그의 시들은 모두 조국에 대한 사랑의 큰 주제로 귀결된다”고 했다.<sup>55)</sup>

리동수는 김소월이 ‘3.1 운동 이후 반일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지만 소월은 이 흐름을 따른 경향적 시를 내놓지 못했다’<sup>56)</sup>며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시 『진달래꽃』을 사랑의 주제를 통해 사회적 속박 속에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비극적 체험<sup>57)</sup>을 드러내는 시로 평가하고 『초혼』을 “고독과 슬픔과 괴로움은 마침내

54) 김창석, 『김소월과 그의 시적 쓰절 - 서거 25주년에 제하여』,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55) 김성길 기자, 『향토시인을 추모 - 김소월 서거 30주년 기념의 밤 진행』,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5.12.28.

56) 리동수, 245쪽.

비분의 감정을 몰이와 울분의 절규로 폭발되기도 하였다. / 시인의 창작에서 절정을 부각시킨 『초혼』이 바로 그런 시<sup>58)</sup>라고 했다. 『진달래꽃』의 이별과 슬픔이 ‘사회적 속박으로 자유를 빼앗긴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초혼』의 절규를 비분과 울분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리동수만의 견해가 아니라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규정한 북한문학이 김소월의 시를 읽고 평가하는 일관된 기준이다. 님과의 이별, 극복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을 배경으로 하는 소월의 시가 비판적 사실주의의 자장 안에서는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각성과 비판의 토대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가신 님을 그리며 <님>과의 영결을 애달프게 호소한 <금잔디>, <반달>, <달맞이>, <초혼>과 같은 시들이 사람들에게 애달픈 정서를 자극하면서도 단순한 설움이나 비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님>을 앗아간 환경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감정이 시가의 바탕에 힘있게 맥박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상을 떠나가 버린 련인의 혼을 불러 참기 어려운 비통한 심회를 터친 <초혼>이 바로 그러하다.

시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혼을 애타게 부르며 안타까이 모대기는 서정적 주인공의 호소를 통하여 당대 불합리한 환경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격정을 강렬하게 토로하고 있다. <sup>59)</sup>

북한문학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범주 안에서 『초혼』의 고양된 감정은 ‘<님>을 앗아간 환경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감정’, ‘당대 불합리한 환경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걱정’으로 한정될 뿐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토대로 인정될 수 없다. 또 가늠할 수 없는 상실의 의식으로 산 자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초혼(招魂) 의례에 담긴 비장함과 의례로 승화된 슬픔의 형상을 느끼는 미적 체험도 제한된다.

57) 리동수, 244쪽.

58) 리동수, 249쪽.

59) 리동수, 269쪽.



리동수는 김소월의 시가 단순한 예수나 비극적인 체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 생활을 동경하는 ‘긍정적 리상’의 짝이 있는데 시 「상쾌한 아침」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했다.<sup>60)</sup> 소월의 시 「상쾌한 아침」을 ‘긍정적 리상’을 보여주는 대표시로 내세우는 것은 리동수만의 견해가 아니다. 앞서 엄호석 논의에서도 ‘긍정적 리상’은 언급한 바 있다. 김소월이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시인들의 높은 미학적 이상에 미치지 못했고 협소한 세계관으로 미래를 위한 투쟁이나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는 못했지만 ‘긍정적 리상’을 보여주었기에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이라할 수 있다<sup>61)</sup>는 것인데 이 ‘긍정적 리상’을 설명하기 위해 엄호석은 「상쾌한 아침」을 인용했고 30년 후 리동수 역시 「상쾌한 아침」을 통해 소월의 ‘긍정적 리상’을 설명하며 그가 ‘비판적 사실주의’적 작가임을 설명한 것이다. 아래 인용시는 엄호석의 책에 실린 「상쾌한 아침」 전문이다.

무연한 벌우에 들어다놓은듯한 이 집  
 또는 밤새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할 이 비  
 실개지에도 봄은 와서 가냘픈 비줄은  
 뚝가의 어슴푸레한 개버들 어린 엄도 축이고  
 난벌에 파릇한 누 집 파밭에도 뿌린다.  
 뒤 가시나무밭에 깃들인 까치떼 좋아 지껄이고  
 개울가에서 오리와 닭이 마주앉아 깃을 다듬는다  
 무연한 이 벌 심겨서 자라는 꽃도 없고 매꽃도 없고  
 이 비에 장차 이름 모를 들꽃이나 필는지?  
 상쾌한 바닷물결, 또는 구룡의 미묘한 기복도 없이  
 다만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있는 무연한 벌!  
 그러나 나는 내버리지 않는다. 이 땅이 지금은 쓸쓸타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금, 시원한 빗발이 얼굴에 칠 때

60) 리동수, 272쪽.

61) 엄호석, 『김소월론』, 22~23쪽.

이 땅이 우리의 손에서

아름다와질 것을!

아름다와질 것을!

-「상쾌한 아침」 전문

엄호석은 이 시에서 “앞날의 많은 전변 이후에 있을 자연 개조에 대한 아름다운 화폭을 공상할 뿐이다. 농촌과 토지에 대한 자연 개조 그리고 그에 바쳐지는 농민 자신들의 창조적 로력”, “농촌에서 농민들과 지주중간에 버려지는 계급투쟁의 장성을 통하여 앞날 많은 전변이 있는 이후에 훌륭한 농촌 생활을 공상속에서나마 내다볼 수 있었다”<sup>62)</sup>고 했다. 아름다운 농토와 자연 풍경을 농민들의 계급투쟁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공상 속에서만나마 아름다운 즉 긍정적인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김소월은 ‘비관적 사실주의’ 시인이라는 설명이다. 시 「상쾌한 아침」은 자주 「초혼」,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과 함께 논의되는데 「초혼」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애수와 리리즘이 있지만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처럼 농민의 열망이 「상쾌한 아침」의 “이 땅이 우리의 손에서 / 아름다와질 것을!”처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귀결된다는 논리가 대부분이다.

동시대에 활동한 평론가 윤세평은 “세계관의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당시 인민을 다만 조국을 잃은 때도는 나그네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일민족 해방 투쟁의 거센 흐름은 그의 시아밖에 있었”고 “사실주의적 시인인 김소월은 제한된 한계에서나마 역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는 향토를 노래한 시에서도 농촌 생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빈궁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사상감정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에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하였으며 「밭고랑 우에서」, 「상쾌한 아침」은 “농촌사람들의 로력과 결

62) 엄호석, 위의 책, 201~202쪽.

부된 시인의 희망과 리상”을 보여준 것이 특징적이라는 말로 김소월의 시가 비애와 애수의 낭만적 색조 가운데서도 앞날의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한다.<sup>63)</sup>

김소월 시의 애수, 리리시즘이 개인의 정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에서 발원한 것이고 계급적 인식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농촌의 현실과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시편들에서 발견한 미래의 ‘이상’이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1960년대 북한문학이 김소월을 평가하는 논리이자 근거이다.

### 3) 사실주의 작가 김소월

류희정이 1992년에 편찬한 『현대조선문학선집 14권』에는 김소월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돋보인다. 시어 반복, 시구 반복, 어음의 음향적 반복, 어순전도법, 함축과 생략, 압운법, 대구법과 각종 소리효과와 같은 보조적 수단들과 감탄, 의문, 부름말 등 보조적 수법들이 널리 쓰여 시의 운율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는, 7.5조, 민족적 율격, 인민의 언어만 지적하던 김소월 시의 형식적 수법적 특징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분석이다.<sup>64)</sup> 이 선집에서는 김소월을 전통적인 민족생활, 향토적 정서와 민족적 감정을 보여주는 시들을 쓴 시인으로 서술할 뿐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진달래꽃』에 대해서 “봉건적윤리의 악습으로 비록 ‘님’을 떠나보내도 너인의 모습은 진달래꽃과 같이 우리 민족성의 아름다움속에 고결한 인간성속에 간직되는것이며 그 리별의 서러움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낳은 어지러운 사회를 저주하게 되는것이다.”<sup>65)</sup>라며 『진달래꽃』에 나타난 이별의 상황을 봉건 윤리의 악습으로 보는 북한문학의 전형적 해석을 보인다.

63) 윤세평, 앞의 책, 254~255쪽.

64) 류희정, 앞의 책, 26쪽.

65) 류희정, 앞의 책, 17쪽.

잃어진 것에 대한 비애와 사모로 가슴 저미며 잃어진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가꾸리라는 애착과 소망은 특히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밭고랑 우에서」, 「상쾌한 아침」 등에서 보다 락천적으로 확신성있게 노래되었다.

이러한 작품에서 시인은 잃어지고 빼앗긴 것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러나 결코 그로부터 오는 비애나 락망에 젖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보다 새롭게 이름다운 생활을 가꾸어가리라는 량만적인 열정과 지향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것이다. (중략) 심지어 자라는 꽃도 없고 메꽃조차 피지 않은 되는대로 내버려진 땅, 일제의 가혹한 폭압과 락탈에 의하여 황폐화된 이 땅이 당시로서는 아름답게 가꾸어지리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정황속에서도 비판하거나 락망함이 없이 앞날의 많은 전변이 있는 다음에 우리 손에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sup>66)</sup>

「상쾌한 아침」에서 찾은 ‘량만’, ‘기대’, ‘확신’은 1950년대 엄호석이 표명한 ‘긍정적 이상’과 같은 맥락이다. 1950~60년대 논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평가하지만 류회정은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김소월 부분은 “자기의 시문학에서 1920년대의 시대정신을 응당하게 노래하지 못하였지만 빼앗기고 짓눌러서는 우리 인민의 고통과 불행, 념원을 소박한 민족적률조에 담아 노래한 것으로 하여 1920년대 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sup>67)</sup>이다. 여기서 말한 ‘사실주의 문학’이란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시인의 의도적이고 비유적인 의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문학의 흐름과 변화를 통찰하는 커다랗고 심오한 관점이 필요하다. 카프 작가들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그 외의 나도향, 김소월같은 일제강점기 작가들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부류하며 북한문학의 근간으

66) 류회정, 앞의 책, 21~22쪽.

67) 류회정, 앞의 책, 29쪽.

로 삼던 북한문학 초기의 상황이 ‘비판적 사실주의’를 소거하고 사실주의로 부르는 것, 항일혁명전통을 유일한 문학전통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밀려났던 카프 작가들과 이전의 북한문학사에서는 비판했던 김억을 다시 문학정전 작업인 선집 14권에 김소월과 함께 편집한 것 등은 “문학예술 발전에 기여한 작가와 예술인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라” “북고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실학파나 ‘카프’를 보잘 것 없이 여겼는데 이는 우수한 민족문학예술유산, 민족의 문화유산을 잃는 것이니 이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sup>68)</sup>만으로는 해명하기에 불충분해 보인다. 물론 이 말로 김소월과 카프작가들이 문학사에 언급되고 문학 정전에 편입되었지만 이 말, 이 책 『주체문학론』의 배경에는 지도자의 말과 교시 이상의 문학 정책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소월 논의만을 통해 가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북한문학에 대한 정치적 문학적 자료가 더 확보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해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김소월 복권의 과정은 드러난 문예사전, 문학사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일 뿐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할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1993년 『천리마』에서는 서정시 『초혼』이 김소월 시의 특징적인 사상정서를 가장 강렬하게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이 시는 가신님의 혼을 피타게 부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절교로 엮어졌다. 여기에 서 가신님, “사랑하던 그 사람”은 단순한 련인이 아니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라는 표상을 가진다.

여기서는 조국을 빼앗긴 설움과 흥분, 잃어버린 조국을 애타게 그리는 마음이 절절하게 노래되어있다. 그러나 『초혼』을 비롯하여 그의 시에는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의욕이나 조국광복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허무감을 주는 약점이 있다.<sup>69)</sup>

68)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4~84쪽; 『김정일선집』 12권, 389쪽.

69) 『김소월과 그의 작품』, 『천리마』, 천리마사, 1993.6.

‘님’이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의 표상이라면서도 『초혼』의 ‘님’은 빼앗긴 조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시가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의욕이나 조국광복에 대한 신념이 없어 허무감을 준다는 것인데 이 글은 후에 2000년 『통일문학』<sup>70)</sup>에 그대로 전재되었다.

2007년 2월호 『조선어문』에서는 김소월, 신채호, 한용운의 시에 나타난 ‘님’의 의미를 함께 정리했는데<sup>71)</sup> 여기서도 이들을 ‘비판적 사실주의’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소월의 시 『초혼』을 보아도 ‘님’은 단순히 애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도 시인이 절절하게 찾고 부른 ‘사랑하던 그 사람’-‘님’은 일제침략자에게 빼앗긴 조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해방전 시가문학에서 노래된 ‘님’은 왜나라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의미하고 있다. 해방전 시가문학에서 조국은 ‘님’으로 표현한 것은 진보적문학에 대한 일제의 탄압책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해방전 시가문학에서 ‘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과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들은 우리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해방 전 시에 나타난 ‘님’을 조국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편협한 시 해석은,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저항이 곧 진보적 문학이라는 것은 일제에 대한 항거가 꺾박받는 인민의 각성과 계급적 사고로 이어져 새로운 세계관이 된다는 북한문학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김송미는 『조선문학』 2009년 1월호에서 김소월의 생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집 『진달래꽃』의 시들을 분석한다. 인민 생활처지에 대한 동정, 전설과 풍습에 대한 긍정, 향토적인 정서, 7.5조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율조와 운율 조성을 한 민족적 운률, 고유어의 활용으로 갖춘 민족적 향취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우리인민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는 혁명적인 시작품들과 대비해볼 때 명백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뚜렷한 방도를 알지 못했던 시인의 세계관적

70) 『김소월과 그의 작품, 『통일문학』 44, 평양출판사, 2000.4.

71) 조홍국, 『해방전 시가문학에 노래된 ‘님’의 의미』, 『조선어문』, 조선어문사, 2007.2.

제한성의 산물”이라며 김소월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김소월이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작품들을 쓴 것은 뜨거운 민족애, 향토에 때문이며 “그 사상 예술성으로 하여 1920년대 시문학의 민족적 성격과 근대적 특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자유시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하여 근대 우리나라 시문학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sup>72)</sup>고 높게 평가한다.

이후 북한에서 김소월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중국청도대학교수 리명학이 『김소월시가의 민족적 특성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기사<sup>73)</sup>를 찾을 수 있으며 고급중학교 통합국어 자료집에서 김소월은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작으로 김소월의 『초혼』이 소개되었다.<sup>74)</sup>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를 설명하며 “애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조국을 의미한다”고 못박고 있다. 학생 학습참고자료인 이 책에는 김소월을 여전히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라 서술했지만 이는 교육용 텍스트이지 문학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반영하는 문학적 텍스트로 보기는 어렵다.

최희건은 향토애가 곧 조국애는 아니라며 향수 차원의 감정이 열렬한 사상감정으로 승화하지 않으면 조국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향토에 대한 그리움을 조국, 민족, 인민으로 연결하여 애국성, 애국주의, 민족성, 인민성으로 설명하던 이전의 평가와 조금은 다른 태도로 보인다.

향수의 감정은 우리 시대시인들이 쓴 시들에도 있었으며 특히 광복전 시기의 시들에 많았다.

1920년대 시인들인 김소월의 《고향》, 조명희의 《나의 고향이》, 그리고 박팔양, 신석정, 정지용의 시들은 한결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의 눈물에 젖은 시들이었으며 광복후 적지 않은 시편들에서도 향수의 감정만이 다분한것들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한 시들에도 물론 향토애의 감정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이 열렬한 조국애의 사상감정으로 승화되지 못했던 까닭에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이를수 없었다.<sup>75)</sup>

72) 김송미, 「시집 『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특성」, 『조선문학』, 2009.1.

73)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분과별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4.9.24.

74) 『초혼』,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통합국어』, 교육도서출판사, 2017, 171~174쪽.

75) 최희건, 「고향과 서정」, 『조선문학』, 2000.12.

1950~6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의 대표로 불리웠던 김소월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수식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초혼』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애국주의를 보여준 시인, ‘진달래’, ‘접동’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민족적 운율, 고유어의 활용으로 인민성을 드러낸 시인, 일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 진보적인 시인이라는 평가의 기초는 변하지 않았다. 김소월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던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가 사라지고 별다른 설명이나 논쟁없이 ‘사실주의’로 대체된 것은 확인할 수는 있으나 논증이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논거와 예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주의’는 북한문학이나 사회주의 문학에서 특정 사조나 경향에 대한 지칭이기보다는 매우 광범하게 쓰이는 일반적인 문학 용어, 개념이기에 사실주의 작가 김소월에 대한 논증은 더 많은 자료 발굴과 북한문학사 연구를 참조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여태까지 북한문학에 나타난 김소월시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았다. 남한에서 김소월은 서정성, 전통적 정한(情恨)의 정서, 낭만과 애수, 민요, 전통 율격의 시인으로 북한에서는 인도주의, 인민성, 애국주의, 민족적 형식, 민족적 요소를 보여준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애상성이 과도하고 당시에 고조되던 계급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계가 있지만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주의로 향토적 소재와 고유어 활용 등은 인민성을 드러낸 것이며 민요조의 율격은 민족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대표시 『초혼』에 나타난 비애와 슬픔은 일제에 대한 항거와 비판에서 나온 것이고 『상쾌한 아침』,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에 나타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경으로 그는 ‘비판적 사실주의’ 대표 시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김소월은 다른 카프, 일제강점기 시인들과 함께 1966년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북한문학사에서 사라졌다가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의 언급으로 문학사와 문학 정전에 편입되는 부침을 겪는다. 김소월 시의 애수, 리리시즘이 개인의 정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에서 발원한 것이고 계급적 인식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농촌의 현실과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시편들에서 발견한 미래의 '이상'이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1960년대 북한문학이 김소월을 평가하는 논리이자 근거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수식이 사라졌는데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김소월은 「초혼」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애국주의를 보여준 시인, 접동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민족적 운율, 고유어의 활용으로 인민성을 드러낸 시인, 일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 진보적인 시인이라는 평가의 기초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북한]

- 강성만, 『서정시와 일반화의 특성』,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4.8.
- 강운림, 『『김소월 시선집』에 대하여』, 『조선문학』, 1956.
-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고급중학교 『통한국어』, 교육도서출판사, 2017.
- 기사, 『김소월 서거 30주년을 기념 - 평양시내 문학예술인들』, 『로동신문』 1965.12.25.
- \_\_\_\_\_, 『김소월과 그의 작품』, 『천리마』, 천리마사, 1993.6.
- \_\_\_\_\_, 『김소월과 그의 작품』, 『통일문학』 44, 평양출판사, 2000.4.
- \_\_\_\_\_,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 분과별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4.9.24.
- 김복원, 『시 문학의 보다 높은 양상을 위하여』,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김성걸 기자, 『향토시인을 추모 - 김소월 서거 30주년 기념의 밤 진행』,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5.12.28.
- 김승미, 『시집 『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 특성』, 『조선문학』, 2009.1.
- 김우철, 『시인 김소월』, 『문학예술』, 문학예술출판사, 1947.
- \_\_\_\_\_, 『시인 김소월 - 그의 서거 20주년에 제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12.
-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7.3. 『김정일 선집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창석, 『김소월과 그의 시적 쓰짚 - 서거 25주년에 제하여』,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 류병관, 『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 『문학예술』, 문학예술출판사, 1947.
- 류희정 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 14권』, 문예출판사, 1992.
- 박중식, 『시인과 개성 - 시인 민병균을 논함』, 『조선문학』, 1960.8.
- \_\_\_\_\_, 『서정시와 현대성』, 『조선문학』, 1961.7.
- 리동수,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리정구, 『소월 시와 조국에 대한 그리움』,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2.9.7.
- 박팔양, 『조국의 향토를 사랑한 시인』,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5.12.24.
- 엄호석, 『김소월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_\_\_\_\_,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윤세평, 『해방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조벽암, 『암록강 기슭에서 - 광산에서 소월묘를 찾아가는 길에』,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6.3.18.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편, 『현대조선문학선집 - 시(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 조흥국, 『해방전 시가문학에 노래된 '님'의 의미』, 『조선어문』, 조선어문사, 2007.2.
- 최희건, 『고향과 서정』, 『조선문학』, 2000.12.
- 현중호, 『김소월과 그의 시문학』, 『현대작가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 [남한]

- 강영미, 『정전과 기억 - 남북한 시선집의 김소월 시 등재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3), 한국학중

양연구원, 2016.

김성수, 『남북한 현대문학사 인식의 거리 - 북한의 일제 강점기 문학사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42, 2010.

윤주은, 『북한의 김소월 시 연구 - 특히 엄호석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22, 1996.

이상숙 외, 『북한의 시학연구 3 - 비평』, 소명출판, 2013.

\_\_\_\_\_, 『북한의 시학연구 6 -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소명출판, 2013.

이승윤, 『북한문학사 서술의 특징과 변모 양상』, 『북한의 시학연구 6 -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소명출판, 2013.

이지순,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 - 남북한 문예시전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70, 2018.

최창현, 『남한 『문학』과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 - 김소월의 『초혼』과 최서해의 『탈출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2019.

## Kim Sowol and Kim's Poems in North Korean Literature

Lee Sangsook\*

This study assesses the critical evaluation and status of Sowol Kim's poems based on their place in Hoseok Um and Sepyeng Yoon's literary surveys, *Modern Joseon Literary Anthology: Poetry (2) (1957)*, *Modern Joseon Literary Anthology 14 (1992)*, and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which were compiled by period.

The poems of Sowol Kim, a representative modern Korean poet, are well known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ir folksong and lyr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thnic distinctiveness. In terms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modernism and tradition in South Korean literature, and between engagement and purity, Sowol Kim is recognized as a pure and lyrical poe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evaluations of Kim's oeuvre in South and North Korea. In North Korean critical literature, Kim is positively evaluated for expressing his affection for his people and nation, which had been subordinated to Japan, and for stressing regional characteristics, patriotism, and a people-centered philosophy using folksong-style rhythms, although some criticize the excessive sorrowfulness and lack of focus on class in his work.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e treatment of ethnicit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atriotism in Sowol Kim's poems are understood as embodying affection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which also

---

\* Gachon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Professor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national specificity and the form of the nation.

**Key words:** Kim Sowol, Kim's poem, Um Hoseok, *Modern Joseon Literary Anthology: Poetry (2)* (1957), *Modern Joseon Literary Anthology 14* (1992),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